

# 완주군, 책 읽는 지자체 대상

## 전국 최고 도서관 인프라 구축 문화지수 향상 기여 높이 평가

완주군이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한국방송미디어그룹, 한국 독서교육신문, 독서경영신문, 한국독서방송에서 주관하고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서 (대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을 수상했다.

완주군립 도서관은 ▲ 전국 최고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지역민 독서문화진흥 기여 ▲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 ▲ 지자체 최초 기부리딩 기부리더 운동, 북모닝 아침독서 운동 추진 ▲

역량 강화 ▲ 완주군민 전 생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2011년부터 도내 최초로 '책 읽는 지식 도시 완주'를 표방하며 공공도서관 5곳, 작은도서관 10곳, 학교마을도서관 4곳 등을 중심으로 생활 속 독서 사랑방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고 있으며, 군민 3명 중 1명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해 독서생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이서혁신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대한민국 독서·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대한민국 책 읽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책 읽기 성공사례를 발굴,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제정된 상으로 독서문화진흥부문, 독서교육 프로그램 부문, 독서경영 부문 등 각 부문별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 농약 용기류 모아서 상금받자

## 무주군, 공병 수거 우수단체 포상계획 밝혀

무주군이 농약 용기류 수거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농약 공병의 수거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무주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12월 중순까지 현장 확인과 검증 과정(1~11월 실적 기준)을 거쳐 마을단체와 청년회, 부녀회, 사회단체들 중 우수단체를 선발한다.

대상 1개 단체에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 2개 단체에게는

각 1백만 원 씩이, 우수 3개 단체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주어질 예정이다.

군 환경산림과 김광영 자원순환담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한 농약용기류 수거량을 기준으로 집중수거운동 추진, 회수 등의 노력도 높은 집중 평가할 방침"이라며 "영농폐기물 수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집중수거운동 추진을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과 투기방지, 분리배출요령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읍면 영농폐기물 수거지원반을 구성해 사각지대를 비롯한 하천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6개 읍면에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49곳이 설치돼 운영 중으로 지난해 영농 폐비닐 639톤, 농약공병 6.9톤을 수거했던 군은 올해 영농폐비닐 643톤, 농약공병 10톤을 수거한다는 계획이어서 농약용기류 수거 우수단체 포상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日 교육관계자, 완주군 학교급식 벤치마킹 나서

##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교육장 등 12명 방문

일본 교육관계자가 완주군 학교급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군에 따르면 11일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직원 12명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완주군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체계 및 아이들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아마가사키시 교육장 일행은 봉서중학교(교장 이문용)에서 학교현황을 비롯하여 급식시간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 알레르기 대책 등 학교급식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수업참관 했다.

소양초등학교(교장 김점균)에서는 전문적 학습동아리 '아리술'의 활동내용과 학습 더딤학생을 위한 두드림



학교 및 완주군과 함께하는 학교-마을 교육과정의 구체적 실천사례 등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과 급식(오리훈제, 쇠고기 미역국, 무쌈, 양상추 과일샐러드, 두부구이, 김치 상추, 쌀밥)을 하고 식생활관에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참관했다.

아마가사키시 교육장(도쿠다 코조)은 "완주군의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과 학교급식 시설 및 식생활교육 등

을 이해하였으며 급식에 나오는 반찬가지수가 다양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관심을 나타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교류가 이어졌으면 한다"는 말했다.

이번 방문을 지난 4월 완주군 학교급식 관계자가 일본의 지산지소를 활용한 학교급식 시스템을 배우고자 견학한 후 상호 정보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원주=이중복 기자

# 진안군, 자연생태계 보존·어족자원 육성 증진 앞장

## 다슬기 147만마리 방류

진안군은 지난 10일 다슬기 서식이 가능한 관내 13개 하천에서 다슬기 147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오염과 외래어종 개체수 증가로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다슬기 포획이 줄어드는 시점에 자연생태계 보존과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작년 125만마리에 이어 올해는 사

양을 증대시킨 147만마리를 방류했다. 특히 다슬기 외에도 올해 6월부터 뱀장어, 붕어, 송가리, 등자개 순으로 총 69만마리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이번 다슬기 방류 147만마리 총 216만마리를 끝으로 올해 치어방류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슬기는 어족자원 조성은 물론 물고기 배설물과 이끼 등을 먹고 자라 자연적 수질정화에 도움이 되며 최근

웰빙식품 재료로 각광받고 있어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실시한 방류사업에 대한 방류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였고, 내내에도 고부가가치 치어 방류를 확대하여 어가 소득증대와 하천의 청정수질 유지 및 하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완주군의회는 오전 10시 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성모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9월 23일부터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완주와일드푸드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완주군민과 더불어 더욱 다양해진 체험거리와 볼거리에 흠뻑 취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집행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장은 "1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자아이들의 날로,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남성편의주의 문화와 왜곡된 성문화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 무주군, 미래 과학인재 키운다

## 관내 초등학교 대상 생활과학교실 운영

무주군은 미래인재를 위한 생활과학교실이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과학교실은 무주군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과학체험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북권위원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군비가 40% 정도 투입된다.

군에서는 올 4월 안성초와 설천초를 시작으로 여름방학까지 무주초와 무풍초, 적상초, 중앙초, 괴곡초에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구천초와 부남초, 부당초에서 실험, 체험, 탐구, 창작 중심의 과학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군은 생활과학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와 공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전북대학교에서는 전담교사를 파견해 공동의 과제를 공동 활동으로 해결하는 "골드버그 체험"과 원리 이해, 문제해결 구상, 결과를 완성해서 확인하는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 자치행정과 조정선 교육협력 담당은 "생활과학교실은 실험 위주의 체계적인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미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한국마사고, 말산업 박람회 참가

한국마사고등학교(교장 김호경) 전 교생과 교직원들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6 말산업박람회(Horse Industry Expo Korea 2016)'에 참가한다.

박람회는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말산업 관련 전시회로서 올해 박람회의 컨셉은 '대한민국 최초! 말산업 & 말문화에술 플라보 박람회'이다. 말산업 관련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판매, 홍보 효과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마사고는 '말산업 마켓플레이스'에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다른 양성기관과 통합 참가하여 학교 독립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를 통해 말산업 분야의 전문교

육과 관련한 마사고의 다양한 특색교육 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전시하고, 국내외 말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인적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말산업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이번 박람회 진로체험학습을 통해 '마향장품', '세계말 전시회', '말문화공연' 등 말과 관련된 이색 전시를 경험하고, 말관련 연계행사와 상설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말산업 관련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호경 교장은 "2018년까지 마사고를 한국말산업 인재육성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상호협력과 긴밀한 정보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조선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전설이 얽혀 있는 마이산의 신령에게 풍요를 비는 마이산신제가 11일 오후 마이산 남쪽 자락 은수사에서 열렸다.

# 풍요 비는 '진안 마이산신제' 열려

조선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전설이 얽혀 있는 마이산의 신령에게 풍요를 비는 마이산신제가 11일 오후 마이산 남쪽 자락 은수사에서 열렸다.

신신제는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 이성계가 신령에게 추수철을 맞아 풍요를 빈 것에서 유래했으며 6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항로 진안군수, 박명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남성편의주의 문화와 왜곡된 성문화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고려말 남원 윤봉에서 왜구를 물리

친 이성계가 꿈에서 국가를 잘 경영하라는 계시와 함께 금척(금으로 된 잣대)을 받은 산이 마이산이라는 전설이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경사스러운 잔치가 있을 때마다 추던 몽금척(夢金尺)이란 춤도 태조가 마이산에서 금척을 받은 내용을 담았다.

초현관을 맡은 이항로 군수는 "내일 개막하는 진안홍삼축제를 맞아 지역 주민 모두가 화합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특별블로그

### 진안군, 홍삼축제 안전점검 실시

진안군은 11일, 12일부터 16일까지 북부마이산 일원에서 열리는 201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장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군에서 위촉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행사장 무대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으며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구조·구급 진출입로 확보 여부도 확인했다.

군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회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지적된 사항은 축제주관 부서에 신속한 안전관리대책을 요청해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개막식과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제장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와 프로그램 등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읍 노인의 날 행사 '성황'

제20회 장수읍 노인의 날 행사가 11일 오전 11시 한누리전당 산터관에서 장수읍 거주 65세 어르신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장수읍 노인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최용득 장수군수, 유기홍 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장수읍 노인 한마당 잔치를 축하했다.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군산 노인복지관 실버밴드의 신명나는 축하공연과 참석자들의 장기지팡이 펼쳐져 잔치의 흥을 북돋았다. 또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효심히 지극한 육육례(장수를 하염마을)씨가 효행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엔 노인의 날 행사가 10일 번안면 노인회 및 자율방범대 주관하여 4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향토작가 전시회 개최

제22회 향토작가 초대전을 알리는 기념식이 11일 진안관광정보센터 2층 수물문화미술관에서 열렸다.

홍삼축제 기간 중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진안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공예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이항로 군수는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해마다 화화·조형 등 다양한 장르에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전시회"라며 "홍삼축제 현장 가까이에서 군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 방문객들에게 진안미술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값진 기회"라고 말했다.

2016년 향토작가전시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진안관광정보센터 2층 수물문화미술관에서 열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췌, 농기계 교통안전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10일 가을철 농번기가 되면서 본격적인 농산물의 수확과 더불어 농기계, 보행보조의자차 등의 도로 운행이 증가되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농기계 및 의자차에 대하여 안전반사판을 부착하며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벌였다.

노인 농기계 운전자·장애인 보행보조의자차가 도로운행 시, 특히 야간 운행 시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 등에서는 더욱 사고위험성이 높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운행을 당부하며 안전반사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 부착된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안전반사판을 부착해 주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윤종섭 서장은 "농기계 농촌지역 농기계 및 보행보조 의자차들이 교통사고가 발생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며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